

#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현 화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박 찬 부

## 目 次

I. 서 론	V. 논 의
II. 이론적 배경	VI. 결 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IV. 결 과	ABSTRACT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인상형성과정은 짧은 시간에 주어진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의복, 지각자 및 사회문화적 맥락변인과 이 세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의복은 착용자의 무언의 상징이며, 또한 의복착용행위는 착용자를 원인제공자(causal agents)로서 자극하고 그의 의도, 감정상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질이나 성격특성을 추론할수 있게 한다(Schneider 등 1979). 또한 의복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중의 하나로서, 인상형성에 있어서 의복의 영향은 상식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었다(Chia, 1994). 그러나 같은 의복(대상)에 대해서도 지각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의 영향을 받아 지각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Kaiser, 1990).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지각자 자신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지각자 변인에 의한 인상형성 연구는 제2보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의복단서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상형성의 연구들을 보면 의복변인의 조작(Mahannah, 1968; Gibbins·Coney, 1981; Harp et. al, 1985; Paek, 1986; Butler와 Roesel, 1989; Gibbins·Schneider, 1980; 이주현, 1990; 고애란, 1990; 김재숙, 1991), 사회문화적맥락변인(Damhorst, 1985; Workman, 1984~85; Ray, 1985~86; O'neal·Lapitsky, 1991; 강혜원·이주현, 1990; 남미우, 1992)의 조작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국내의 인상형성과정에서 사용된 의복유형의 경우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장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에 관한 연구는(김재숙, 1991; 강혜원·이주현, 1990; 강혜원·고애란, 1991)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자극물은 실제의 자극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에 대해 Holbrook(1983)이 이미 지적했지만, 사용된 자극물이 그림으로 이루어진 연구물들이 많아 실제 의복이 착용된 모습의 실물이나 사진보다 현실감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오차는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한복은 일상복으로서 보다 특정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입는 예복의 속성을 띄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추세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는 한국적인 것의 재조명과 발전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다는 사상적 체계하에 우리의 전통적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검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복은 젊은층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일정한 구조를 색상조화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연령에 적합하게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복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는 필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복의 유행은 양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색상과 소재를 중심으로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1996). 같은 실루엣의 한복이라도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에 따른 색상조화로 다양한 감각을 표현하므로 지각자가 받는 인상은 다를 것이며 또한 지각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차원을 알아보고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자한복의 색상과 색상조화, 구조를 중심으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의복유형에 있어서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한복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자극물로서 그림이 아닌 실제 착용자의 모습의 사진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였으며, 셋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용적 측면에서 한복이나 한복응용스타일의 생

산이나 판매를 위한 방향제시를 함으로서 한복의 활용범위를 확장시킬수 있다는데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은 어떠한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 2)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1) 자극물 : 자세와 실루엣은 통제되고 의복단서(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만 조작된 한복을 착용한 여자모습의 19장의 칼라사진임.

2) 의복유형 : 의복유형은 치마·저고리차림의 여자한복을 말함.

3) 의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 :

### (1) 의복색상

의복의 색상은 면적이 가장 넓은 치마의 색을 기준으로 한색(색의 온도감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과 난색(색의 온도감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조작한 것임.

### (2) 의복의 색상조화

의복의 색상조화는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나누어질수 있다.

① 유사조화는 크게 공통점이 있는 유사한 색상끼리 이루는 조화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명도나 채도를 변화시켜 조화를 이루는 동일색상조화로 한정하였음.

② 대비조화는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주거나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들을 대비시켜서 이루는 조화로서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 대비조화가 포함되었다.

· 보색조화 :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색채를 이용한 조화

· 근접색을 이용한 보색조화 :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보색과 인접해 있는 색상을 이용한 조화

· 대비색조화 :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주는 색상들을 대비시켜서 이루는 조화

· 삼각조화 : 색상환에서 각각 120°씩 떨어져 정삼각형을 이루는 색상끼리의 조화

### (3) 의복구조

한복의 부분을 크게 저고리·치마·깃·고름의 네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을 색상과 색상조화에 기초하여 나눈것이다. 동일 색상의 부분들은 ‘·’을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색상이 구별되는 것은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구조로 나누었다.

#### ① 저고리·치마·깃·고름

; 저고리, 치마, 깃 및 고름의 모든 부분들이 동일색상인 의복.

#### ② 저고리·깃·고름/치마

; 저고리와 깃과 고름이 동일색상이고, 치마의 색상만 다른 의복.

#### ③ 저고리/치마·깃·고름

; 치마와 깃과 고름은 동일색상이며 저고리색만 다른 의복.

#### ④ 깃·고름/저고리·치마

; 깃과 고름이 동일색상이며, 저고리와 치마가 동일색상이지만 깃·고름색이 저고리·치마색과 다른 경우의 의복.

4) 의복착용자 :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의미하며, 의복착용자 또는 지각대상자라고 지칭함.

5) 지각자 : 실험대상자로서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대하여 관찰하고 응답한 사람들.

6) 인상 : 지각자가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을 의미하며 의복착용자의 인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7) 인상의 요인 : 지각자가 의복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의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의미함.

## II. 이론적 배경

### 1. 인상형성 이론

#### (Impression Formation Theory)

사람은 매우 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 타인에 관한 광범위한 인상을 형성한다.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Freedman등, p. 89, 1981 ; 정양은, pp.177~179, 1982). 인상형성 이론에는 Asch(1946)를 중심으로 한 형태주의 접근과 Anderson(1965)을 중심으로한 행동주의적 접근이 있다(강혜원, pp.42~46, 1996).

#### 1) 형태주의적 접근

Asch(1946)에 의해 시작된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론은 어떤 특질이 본래 다른 특질보다 개인에 대해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 결국은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gestalt)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특질중 어떤 것이 중심특질(central trait)이 되어 이 중심특질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의 전반적 인상이 형성되며 주변특질들은 이 인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Freedman등, pp.92~93, 1981). 즉 그는 피지각자가 지닌 여러특질, 특성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그 상호관련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Gestalt)를 인상이라고 가정하였다.

#### 2) 행동주의적 접근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에 따른 이론으로서, Anderson(1965)은 인상형성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개의 정보들의 의미가 기계적으로 합산되어 최종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정보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Kelly, p.91, 1991). 여기에는 평균모델, 누가모델, 가중치평균모델등이 있다(강혜원, pp.44~46, 1995).

## 2. 색채이론

색(color)은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의 3대속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3대 속성에 따라 색을 표시한 색채계이론으로는 Munsell표색계, Ostwalt표색계, Prang표색계등이 있다. 먼셀의 표색계에서 색상의 표시는 각 색상안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와, 색상을 나타내는 문자를 합하여 나타낸다. (예 : 2.5R)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는 1에서 9까지의 번호로 표시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어두어짐을 나타낸다. 색기운의 강도를 나타내는 채도는 중심의 무채색축을 0으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색기운이 증가할수록 숫자가 커진다. 색채의 표시법은 색상(H), 명도(V), 채도(C)의 순서로 HV/C의 형태로 표시한다.

색상의 조화는 크게 공통점이 있는 유사한 색상끼리 이루는 조화를 말하는 유사조화(related color harmony)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주거나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들을 대비시켜서 이루는 조화인 대비조화(contrasting color harmony)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은영, pp.144~146, 1996).

색상에 따른 느낌의 차이에서 가장 강하고 공통적인 것은 온도감으로 난색과 한색은 색상환에서 노랑과 보라를 축으로하여 나뉘며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은 난색으로 초록, 파랑, 남색은 한색으로 구분된다(이은영, p.165, 1996).

색에 관련된 심리적 현상으로는 색채에 있어서의 다양한 느낌과 시각적 효과인 난색과 한색의 온도감에 따른 차이, 색상과 명도에 따른 중량감

의 차이, 색상에 따라 동일한 면적이라도 크기가 달라보이는 면적감(extension), 앞으로 전진하는 듯하고, 뒤로 후퇴하는 듯한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진출색과 후퇴색, 색채에 따른 연상과 유추작용(색채와 음향, 냄새, 음식, 촉감, 언어, 형태, 개성등), 색의 상징성 등이 있다(이은영, pp.165~171, 1996 ; Horn과 Gurel, pp.336~348, 1991 ; Birren, pp.207~222, 1995 ; 하용득, pp.109~117, 1989).

## 3. 의복과 인상형성

### 1) 의복단서의 영향

김재숙(1991)은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의복범주(한복, 서양의복), 유행성(classic, 유행), 착용자연령(늙은, 젊은)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好惡평가, 화친, 개화, 가정관리등 4차원의 인상이 일어났으며, 한복착용자는 서양의복착용자에 비해 개화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인상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

Delong과 금기숙(1994)은 한국전통의복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한복유형(전통적인 것, 개량되며 전통적인 것, 개량된 것), 문양(금박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조작된 착용자의 사진을 지각자에게 제시한후 인상을 평가한 결과, 금박이 있으며 전통적인 것과 금박이 있으며 개량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개량된것(바지, 짧은치마)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강혜원과 고에란(1991, b)은 중년여성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복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배색과 관찰자연령이 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디자인의 전통성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 한복응용스타일이 전통적인 한복보다 더 보기 좋고, 품위있으며,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지각되었으며, 배색에 따라서는 보색조화가 유사색조화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되었고, 전체적인 지각에 있어서도 중년여성이 여대생에 비해 한복배색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의복단서의 영향을 연구한 것에는 Harp, Stretch 와 Harp, 1985 ; Paek, 1986 ; Butler와 Roesel, 1989 ; Bell, 1991 ; Gibbins와 Coney, 1981 등의 연구가 있다.

## 2) 의복색상의 영향

색(color)은 의복에 있어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며(강혜원, p.70, 1995), 개인에 대한 첫 인상과 그 사람에 대한 기호와 성격을 반영시켜주고, 의복은 색채에 의해 전달되는 미적감각으로 표현된다(정삼호, 1990). 또한 색은 의복을 착용한 신체구성의 표면을 몇가지 방법으로 한정할수 있고 형태나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며,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며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 작용한다(Delong, pp.91~92, 1987).

Winakor와 Navarro(1987)은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유형(dress, suit, sports)이 의복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복착용자에 관한 호감평가에 대해서 의복색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의복유형은 체계적이며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주현(1990)은 의복단서중 의복색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는데 즉 빨간색 의복착용자는 화려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파란색 의복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김정색 의복착용자는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고애란(1990)은 suit의 색과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suit의 색상은 지각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평가되었으며, 김광경(1990)의 직장여성의 남성적·여성적 의복에 관한 연구결과, 색은 평가요인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즉 감색suit인 경우가 분홍색 suit보다 딱딱하고 차가우며 남성적인 인상을 주었다. 또한 여대생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한 강혜원과 고애

란의(1991, a)의 연구에서 한복색배합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유사색 또는 보색조화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선호는 없고 저고리에 비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분홍저고리에 보라색치마인 유사조화가 가장 선호되는 색조화라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문헌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되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자극물제작

여자가 한복을 착용한 모습의 컬러사진 자극물을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를 변화시켜 인상형성의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는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발간된 '한국의 미'와 '아름다운 우리옷' 등 한복월간지를 토대로 하여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구조를 파악하였다. 한복의 문양과 부분염색, 자수, 끝동은 통제하여 문양과 자수, 끝동등이 없는 것으로 제한시켰다.

한복의 구조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각 부분들의 색상조화를 통해 ① 깃, 고름, 저고리 및 치마색상이 동일한 구조(저고리·치마·깃·고름) ② 깃·고름색이 저고리색과 동일하고 치마색과 다른 구조(깃·고름·저고리/치마) ③ 깃·고름색이 치마색과 동일하고 저고리색과 다른 구조(저고리/치마·깃·고름) ④ 저고리·치마색이 동일하고, 깃·고름색이 동일하지만, 깃·고름색이 저고리·치마색과 다른 구조(깃·고름/저고리·치마)의 4종류로 제한하였다.

한복의 색상과 색상조화는 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빈도를 파악하여, 그 빈도를 정리한 결과 한색계와 난색계의 유사조화와 대비조화의 각 색상조화별로 빈도수가 높은 의복을 선정하여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유사조화에서 동일색상조화와 인접색상조화의 경우에 빈도수가 높은 것을 자극물로 제작하여 검토한 결과 지각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색상조화만을 선택한 반면, 대비조화에서는 뚜렷함을 이루는 대비조화 중 보색조화, 근접색을 이용한 보색조화, 대비색조화, 삼각조화 배색을 선택하였다.

자극물의 자세는 한복잡지에 나타난 사진중에서 가장 정면이며 모델의 자세가 바른 것을 선택하여 scanning한후, 조사하여 선정한 색상을 Adobe photoshop 3.0 program에서 ‘한국표준색 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과 비교하면서 색상조화를 변화시켜 조작하였고, 슬라이드 프린터(HR-6000)로 film에 찍은후 54장의 자극물의 사진을 현상하였다. 총 54장의 자극물중 색상과 색상조화, 빈도수를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배색조화를 이루는 19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의미미분척도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중 본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38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여 7점척도의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박혜선, 1982 ; Delong과 Cerny, 1983~84 ; Holbrook, 1986 ; 고애란, 1990 ; 이주현, 1990 ; 김재숙, 1991 ; 이경희, 1991 ; 이은미, 1992 ; 남미우, 1992 ; 이선경, 1993)

2. 예비조사

1) 일시 : 1996년 5월 2~3일

2) 피험자 : 본 실험의 피험자와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의류학과 3, 4학년 3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3) 예비조사목적

(1) 의복단서(색상조화)의 전반적인 인상을 알아본다.

(2) 의미미분척도를 수정·보완한다.

4) 측정도구

(1) 자극물 : 선정된 19장의 사진중 지각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평가를 일으킬것으로 추정된 색상조화(대비조화)중 4장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의미미분척도 :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3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5) 실험디자인 : 피험자 1인당 자극물 4장과 각 자극물당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6) 예비조사 연구결과 : 의미미분척도의 수정·보완 : 인상차원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varimax회전을 실시한 결과 탈락되거나, 요인에 부적절하게 묶인 8개의 형용사쌍을 제외하였다.

3. 본조사용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조사에 사용된 자극물은 Adobe photoshop 3.0 program으로 조작한 여자 한복처럼 19장의 의복착용자를 찍은 칼라사진(5×7in)이었다.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의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2) 의미미분척도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출된 30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7점척도의 의미미분척도이다.

<표 1> 자극물로 사용된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와 구조 및 자극물 번호

치마색	유 사 조 화								대 비 조 화										
	완전동일		동일색상조화						보색조화			근접보색조화				대 비 조 화			
	난색	한색	난 색			한 색			한색	난색	난색	한색	한색	난색	한색				
깃	5 <sup>a</sup> R P 5/12	7.5 B G 7/6	2.5 R P 7/10	2.5 R P 8/6	2.5 R P 3/6	2.5 P B 3/6	2.5 P B 5/10	10 B G 5/8	10 G Y 5/12	10 P Y 4/12	5 G Y 5/10	7.5 R G 3/12	10 G Y 5/10	5 R Y 4/12	7.5 P B 2/8	2.5 R R 4/12	7.5 R R 4/14	5 P B 2/8	5 Y B 8.5/14
고름	5 R P 5/12	7.5 B G 7/6	2.5 R P 7/10	2.5 R P 8/6	2.5 R P 3/6	2.5 P B 3/6	2.5 P B 5/10	10 B G 5/8	10 G Y 5/12	10 P Y 4/12	5 G Y 5/10	7.5 R G 3/12	10 G Y 5/10	5 R Y 4/12	7.5 P B 2/8	2.5 R R 4/12	7.5 R R 4/14	5 P B 2/8	5 Y B 8.5/14
저고리	5 R P 5/12	7.5 B G 7/6	2.5 R P 8/6	2.5 R P 8/6	2.5 R P 7/4	2.5 P B 5/10	2.5 P B 5/10	10 B G 7/8	10 P Y 4/12	10 P Y 4/12	5 R P 5/12	10 G Y 5/10	10 G Y 5/10	5 B Y 7/8	2.5 R R 4/12	2.5 R R 4/12	5 P B 2/8	5 P B 2/8	7.5 R R 4/14
치마	5 R P 5/12	7.5 B G 7/6	2.5 R P 7/10	2.5 R P 7/10	2.5 R P 7/4	2.5 P B 3/6	2.5 P B 3/6	10 B G 7/8	10 G Y 5/12	10 G Y 5/12	5 R P 5/12	7.5 R R 3/12	7.5 R R 3/12	5 B Y 7/8	7.5 P B 2/8	7.5 P B 2/8	7.5 R R 4/14	7.5 R R 4/14	5 Y R 8.5/14
구조 번호	① <sup>b</sup>	①	②	③	④	②	③	④	②	③	④	②	③	④	②	③	②	③	⑤
자극물 번호	E	A	G	H	F	C	D	B	J	K	N	O	P	I	L	M	Q	R	S

a : 5RP 5/12와 같은 예에서 5RP는 색상을 의미하는 기호이고, 5/12의 5는 명도, 12는 채도를 나타낸다.  
 b : 구조-①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②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③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    ④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⑤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과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3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86명이었다. 조사기간은 1996年 5月~6月의 기간에 총 4주에 걸쳐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2) 자극물 제시방법과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는 full factorial design이 아니고 한 피험자가 자극물 19장을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장의 자극물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인상 형성평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색상,

색상조화, 구조를 고려하여 구성하여 제시간격은 1일정도로 5회에 걸쳐 나누어서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는 달랐으며, 개별면접을 통해서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6.11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행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검증은 의미미분척도를 요인분석했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연

구문제 2의 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요인점수로 의복단서와 지각자변인별 변량분석과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을 사용하였다.

#### IV. 결 과

##### 1. 연구문제 1 :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은 어떠하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을 알기위해 자극물별로 응답한 의미분척도의 측정치를 Varimax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도출하였고 의복단서별로 도출된 인상차원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1) 의복단서를 통합한 인상요인도출 : 의복단서를 통합하여 도출된 인상차원은 <표 2>와 같이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선호·평가요인이 29.6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개성·주의집중요인(25.13%), 젊음요인(5.07%), 친화요인(3.70%)의 순이었다.

요인 I은 선호·평가요인으로 29.62%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선호와 관련된 특성, 미적평가특성과 품위와 관련된 평가특성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II는 개성·주의집중성요인으로 25.13%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개성과 관련된 특성과 주의집중과 관련된 특성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III은 젊음요인으로 5.07%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젊음과 성숙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구성되었

<표 2> 의복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I 선호·평가요인		요인 II 개성·주의집중요인		요인 III 젊음요인		요인 IV 친화요인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보기 싫다. - 보기 좋다.	.88347	평범하다. - 특이하다.	.79858	성숙하다. - 귀엽다.	.79086	차갑다. - 따뜻하다.	.69185
멋없다. - 멋있다.	.88015	보편적이다. - 보편적이지 않다.	.68527	절름다. - 발랄하다.	.74077	딱딱하다. - 부드럽다.	.67911
호감이 간다. - 호감이 가지 않는다.	-.87412	소심하다. - 대담하다.	.67585	나이들어보인다. - 어려보인다.	.70655		
보기 흉하다. - 아름답다.	.84985	무난하다. - 강렬하다.	.65028	수수하다. - 화려하다.	.58371		
세련됐다. - 촌스럽다.	-.83882	약하다. - 강하다.	.64459	절름다. - 절름다지 않는다.	.57284		
내가 좋아한다. - 내가 싫어한다.	-.81176	눈에 띄지 않는다. - 눈에 띈다.	.63682	신중하다. - 경박하다.	.54334		
깔끔하다. - 깔끔하지 않다.	-.73233	중간색이다. - 칼라풀하다.	.58901				
산뜻하다. - 우중충하다.	-.72616	고전적이다. - 현대적이다.	.57140				
품위없다. - 품위있다.	.68900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49726				
친밀하다. - 낯설다.	-.61324	단순하다. - 복잡하다.	-.49671				
어수선하다. - 차분하다.	.58229						
고유근	9.0993		7.4729		1.4949		1.1087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9.62%		25.13%		5.07%		3.70%
신뢰도	0.8820		0.8394		0.8574		0.6313
총설명력	63.53%						



으며, 요인Ⅳ는 친화요인으로 3.70%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친밀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두개 이상의 요인특성을 갖는 형용사쌍(형식적이지 않다-형식적이다)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  $\alpha = .63 \sim .88$ 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 의복단서에 따른 인상차원의 구조비교

(1) 의복단서에 따른 인상의 특징

의복단서에 따라 도출된 착용자의 인상차원(요인)은 각기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3>은 의복단서에 따라 도출된 인상의 차원구조를 내용별로 비교 요약한 것이다.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들은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어느 특정차원이 나타나지 않거나 새로

<표 3> 의복단서에 따른 인상의 차원구조(내용별 비교)

자료분석방식		인상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구조 <sup>ab</sup>						총 설명력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	독특성	격식		품위·외모	
의복단서를 통합한 자료분석			I (29.62%) <sup>c</sup>	II (25.13%)	III (5.07%)	IV (3.70%)	.	.	.	63.53%	
의복단서 별 자 료 분 석	색 상 조 화	유사 조화	동일색상조화	I (26.42%)	II (21.89%)	III (6.31%)	IV (3.81%)	.	.	.	58.43%
		대 비 조 화	보색조화	I (28.11%)	II (22.24%)	III (5.08%)	IV (4.06%)	.	.	.	59.49%
			근접보색조화	I (29.38%)	II (19.97%)	III (6.07%)	V (4.09%)	IV (4.78%)	.	.	64.29%
			대비색 조화	I (27.89%)	II (21.49%)	III (5.45%)	IV (4.49%)	.	.	.	59.33%
			삼각조화	I (28.13%)	II (20.84%)	III (5.54%)	V (4.23%)	IV (5.03%)	.	.	63.77%
	구 조	저고리·치마· 깃·고름	II (21.77%)	III 주의집중 (5.34%)	.	V (3.47%)	.	IV (3.69%)	I (33.26%)	67.54%	
		저고리·깃· 고름/치마	I (28.85%)	II 주의집중 (22.75%)	III (5.30%)	V (3.45%)	.	IV (3.75%)	.	64.09%	
		저고리/치마· 깃·고름	I (31.10%)	.	II (23.36%)	IV (4.09%)	.	III 개성·격식 (5.67%)	.	64.21%	
		깃·고름/ 저고리·치마	I (34.12%)	II 주의집중 (22.38%)	III (4.45%)	IV (3.55%)	.	.	.	64.49%	
		치 마 색 상	한색	I (29.63%)	II (24.15%)	III (4.70%)	IV (3.96%)	.	.	.	62.44%
난색	I (30.42%)		II 개성·젊음요인 (25.37%)	III 보편성요인 (4.62%)	IV (3.90%)	.	.	.	64.32%		

a : 로마숫자는 요인분석에서 얻은 각 인상차원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에 따른 순위임.

b : 자료에 따라 요인의 명칭이 다른 것은 칸 안에 요인명을 기입하였음.

c : 괄호안의 숫자는 각 차원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임.

운 차원이 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복단서중 치마색상의 경우에는 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는 전체 인상차원과 다르지 않았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에는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젊음요인의 형용사쌍이 한 요인으로 묶여 제 2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3은 보편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복단서중 색상조화의 경우는 구조의 측면보다 인상차원의 구조의 변화가 적었다. 색상조화에서는 근접보색조화와 삼각조화에서 새로운 인상차원인 독특성차원이 나타났는데 이는 색상조화에 있어 보편적이 아닌 특이한 조화로 이루어진 의복단서의 영향이라 볼수 있다.

구조의 측면으로 볼 때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의복의 경우가 다른 어떤 의복단서의 경우보다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의복의 경우에는 제1요인으로 품위·외모요인이 도출되어 젊음요인과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형용사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요인을 만들었으며, 격식요인도 도출되었다. 또한 저고리·깃·고름/치마 구조의 의복단서의 경우에도 격식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저고리/치마·깃·고름 구조의 의복단서의 경우에는 개성요인과 격식요인이 함께 합쳐져서 도출되었다. 개성·주의집중요인, 젊음요인, 친화요인은 의복단서에 관계없이 비교적 공통된 내용의 인상차원으로 나타났다.

## (2) 의복단서에 따른 인상의 중요측면

의복착용자의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하여 볼때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인상차원은 선호·평가요인으로,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의 의복단서의 경우에만 품위·외모(33.26%)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때에 대학생들이 한복착용자의 외모지각에 있어서는 선호·평가에 관한 지각이 전체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면,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의 의복단서의 경우에는 품위·외모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또한 개성·주의

집중의 요인도 의복단서별로 고르게 나타나 한복이 색상조화의 영향이 개성·주의집중요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다.

## 2. 연구문제 2 :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별 요인점수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é의 다중범위검정법(Scheffé'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요인값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변량분석결과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는 각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도표(graph)로 나타내어 설명하였다.

요인점수의 계산: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기여도(형용사쌍의 요인부하량의 높·낮이)에 따른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요인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표 4>는 각 인상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 1) 선호·평가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의 영향

선호·평가요인에서 의복단서중 색상조화에서 유사조화가 대비조화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P < .001$ ), 구조에서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의 순서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P < .001$ ). 구조에 따른 인상에 있어서는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Scheffé의 다중범위검정결과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선호·평가요인에서 의복단서중 치마색상에 따른 인상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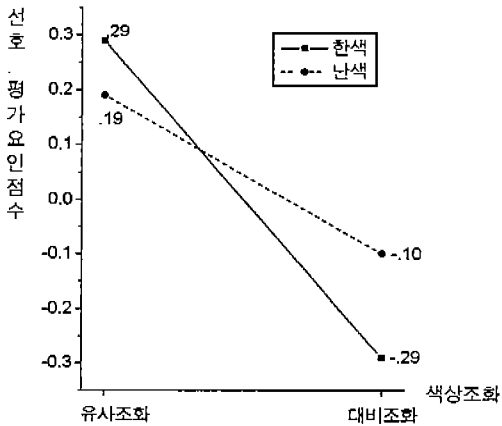
단서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1>은 선호·평가요인에서의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사조화에서는 한색

<표 4>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에 따른 요인별 변량분석(N=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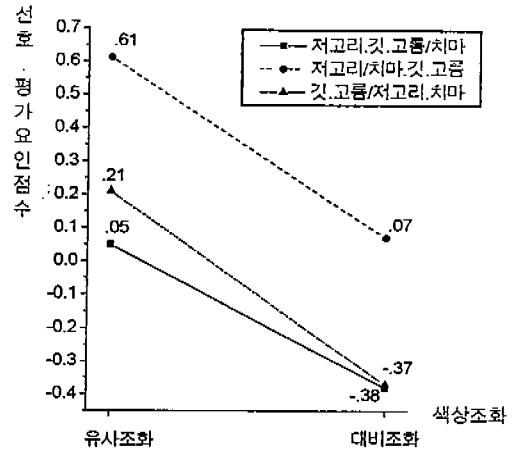
독립변인		인상요인		개성·주의집중 요인		젊음 요인		친화요인		
		선호	F값	Mean	F값	Mean	F값	Mean	F값	
의복 단서	색상 조화	유사조화 대비조화	.24 Aa -.20 B	161.58***	-.46 B .37 A	691.11***	-.33 B .26 A	381.39***	.17 A -.14 B	82.35***
	치마 색상	한색 난색			.05 A -.05 B	11.44***	-.30 B .30 A	397.68***	-.26 B .26 A	232.75***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	.10 A	47.65***	-.38 C	43.48***	.05 B	64.08***	-.03 B	8.98***
		저고리·깃·고름/치마	-.23 C		-.09 A		-.13 C		-.02 B	
저고리/치마·깃·고름		.25 A	-.20 B		.27 A		-.07 B			
깃·고름/저고리·치마		-.08 B	.02 A		-.24 C		.16 A			
상호 작용 효과	색상조화×치마색상		17.15**	9.65**				190.50***		
	색상조화×구조		10.71***			36.98***		12.84***		
	치마색상×구조			38.64***		92.13***		8.54***		
	색상조화×치마색상×구조		4.19*	30.39***		47.17***		18.08***		

\*p<.05, \*\*p<.01, \*\*\*p<.001

a: Scheffé의 다중범위 검정결과를 나타내는 문자임.  
F값은 의미있는 것만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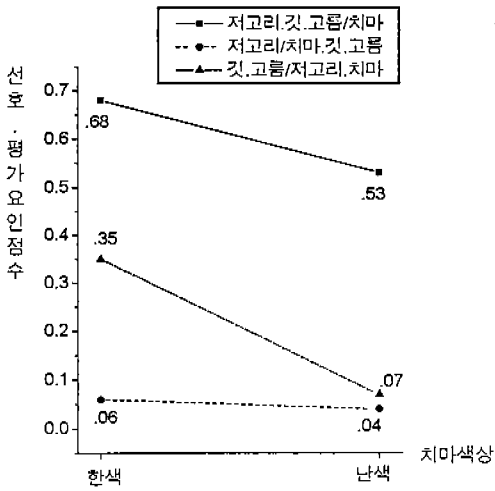
<그림 1>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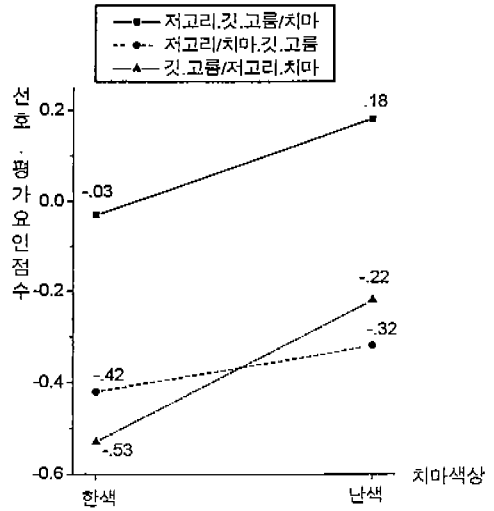
<그림 2>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의 치마색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비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을 덜 선호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그림 2>는 선호·평가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구조간의 상호작용효과로 유사조화에서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를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나 대비조화에서는 두 구조간의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과 <그림 4>는 선호·평가요인에서 색상조화, 치마색상, 구조의 삼원상호작용효과로 <그림 3>과 같이 유사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이 난색의 치마색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보다 더 선호·평가적으로 지각되었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는 두 구조를 지각하는데 차이가 크



〈그림 3〉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 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유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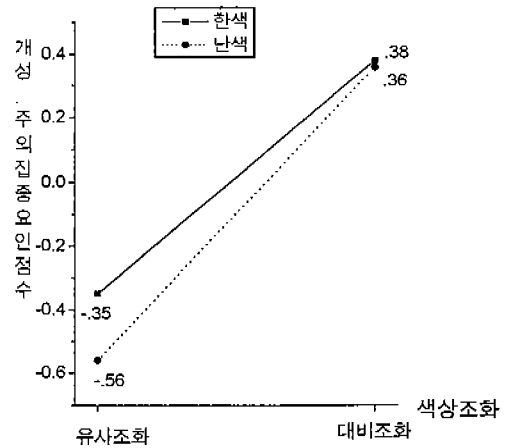
〈그림 4〉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 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대비조화

지 않았다. 〈그림 4〉와 같이 대비조화에서는 난색의 치마색상이 한색의 치마색상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한색의 치마색상에서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보다 더 선호·평가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2) 개성·주의집중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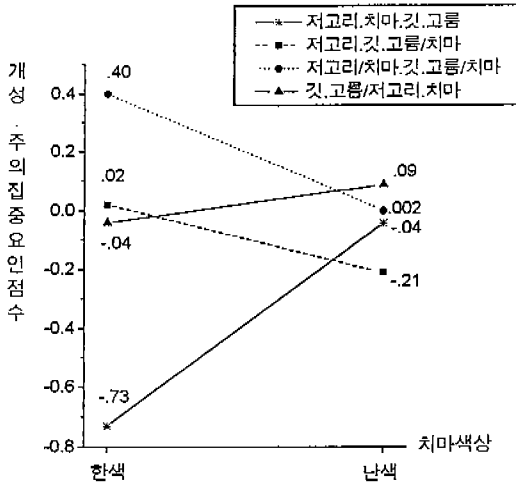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는 3가지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색상조화에 있어서는 대비조화가 유사조화보다 ( $P < .001$ )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되었고, 구조에서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의 순으로 ( $P < .001$ ) 더 개성적이고 주의집중적인 인상을 받았다. 구조에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두집단은 Scheffé의 다중범위검정결과 차이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의복단서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5〉는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것으로 유사조화의 경



〈그림 5〉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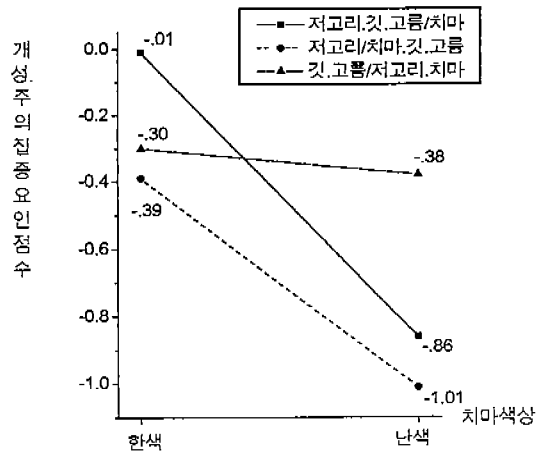
우에는 대비조화에 비해 한색을 난색보다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했으나 대비조화에서는 한색과 난색의 지각차이가 크지않았다. 〈그림 6〉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로 한색인 경우의 지각순서와 난색의 경우의 지각순서가 차이가 있었다.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에는 난색의 경우와 반대로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가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저고리·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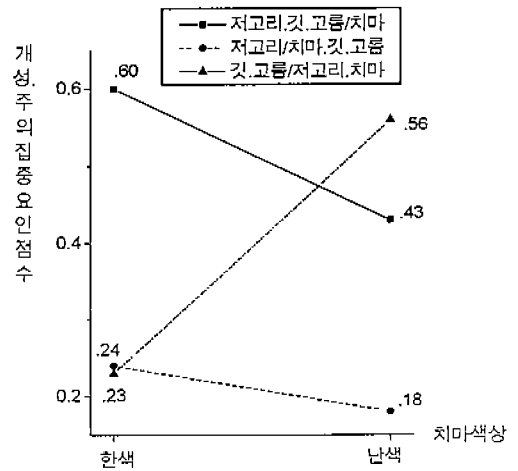
〈그림 6〉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 고름/치마구조도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에 비해 난색의 경우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를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에 비해 많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치마색상이 난색인 경우에는 두 구조의 지각에 한색만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에 비해 상당히 개성·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한 반면 치마색상이 난색인 경우에는 두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지각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가 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보다 구조에 따라서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하는데에는 그 폭이 컸으며 난색인 경우에는 구조에 따른 그 지각정도는 한색의 치마색상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치마색상의 한색·난색에 따라서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하는 순서도 달랐다. 치마색상(한·난색)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림 7〉과 〈그림 8〉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색상조화, 치마색상, 구조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유사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이 난색의 치마색상보다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되었는데 특히 한색의



〈그림 7〉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유사조화



〈그림 8〉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대비조화

치마색상의 경우에는 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와 반대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보다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8〉과 같이 대비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성·주의집중성이 낮게 지각되었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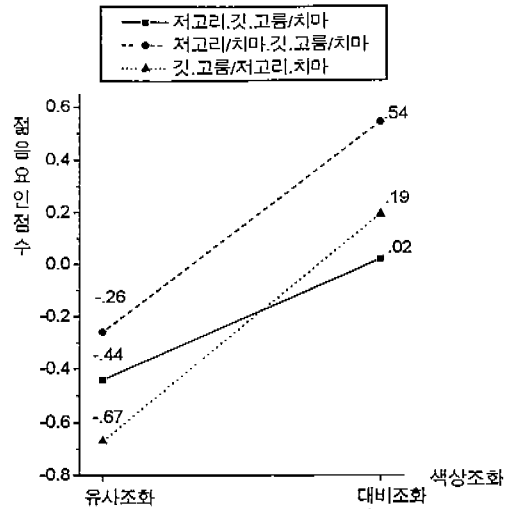
구조에 비해 상당히 개성·주의집중적으로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와는 반대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보다 훨씬 더 개성·주의집중요인점수가 높았다. 특히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하여 <그림 7>과 <그림 8>에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젊음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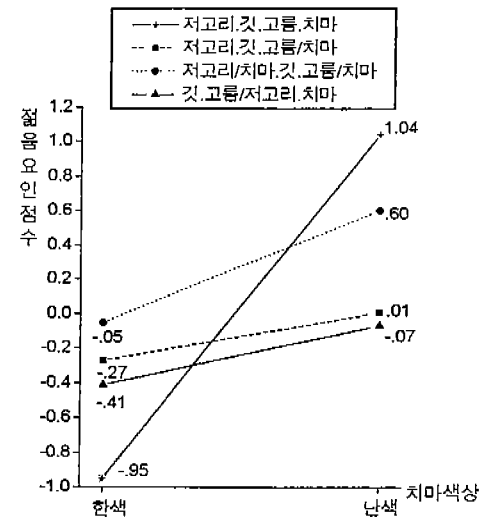
젊음요인에서는 3가지 의복단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색상조화에서는 대비조화가 유사조화보다( $P < .001$ ), 치마색상에서는 난색이 한색보다( $P < .001$ ) 더 짧게 지각되었고, 구조에서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의 순으로( $P < .001$ ) 더 짧게 지각했다. 구조에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Scheffé의 다중범위검정결과 차이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의복단서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9>는 젊음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로 대비조화에서의 모든 구조가 유사조화에서보다 더 짧게 지각되었다. 유사조화의 경우는 대비조화의 경우와 반대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보다 좀더 짧게 지각되었으나,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대비조화의 경우에 유사조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짧게 지각되었다.

<그림 10>은 젊음요인에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로 모든 구조에서 치마색상이 난색인 경우가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보다 더 짧게 지각되었다. 치마색상에 따라 큰 지각차이를 보인 구조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로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에는 모든 구조중 가장 나이들게 지각했으나 치마색상이 난색인 경우에는 가장 짧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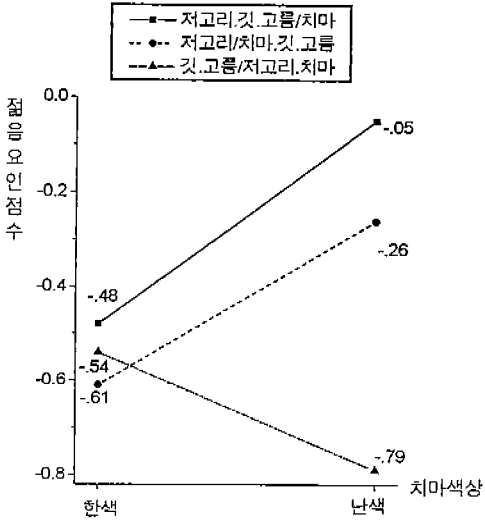


<그림 9> 젊음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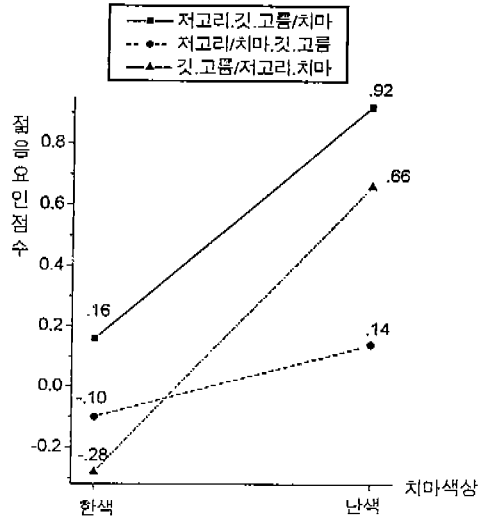


<그림 10> 젊음요인의 인상에 대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1>과 <그림 12>는 젊음요인에서 색상조화, 치마색상, 구조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과 같이 유사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이 난색의 치마색상보다 구조간 지각차이가 적었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에서는 구조별 지각차이가 컸다. 특히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한색의 치마색상이 난색의 치마색상보다



〈그림 11〉 깊음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유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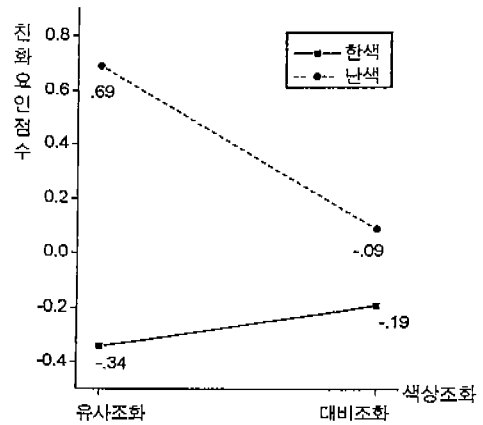


〈그림 12〉 깊음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대비조화

짧게 지각되었으나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난색의 치마색상이 한색의 치마색상보다 훨씬 더 짧게 지각되었다. 〈그림 12〉와 같이 대비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의 경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가 가장 짧음요인점수가 낮았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에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가 가장 짧음요인점수가 낮았다. 특히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다른 구조에 비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여 색상조화에 따른 짧음요인의 지각차이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 친화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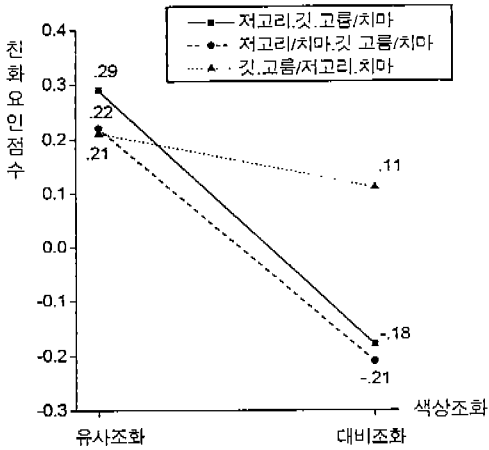
친화요인에서 3가지 의복단서가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는데 색상조화에서는 유사조화가 대비조화보다( $P < .001$ ), 치마색상에서는 난색이 한색보다( $P < .001$ ) 더 친화적으로 평가되었고, 구조에서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의 순으로( $P < .001$ ) 친화요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에서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 저고리/치마·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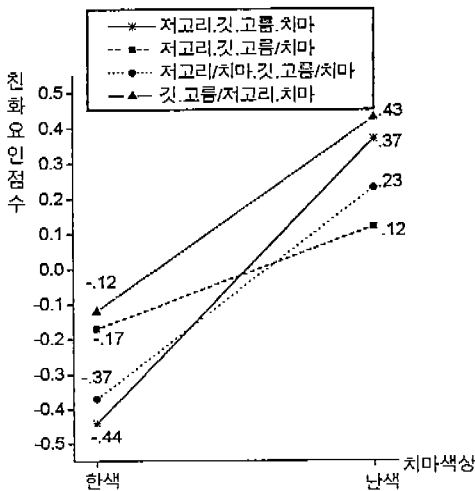
〈그림 13〉 친화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치마색상과의 상호작용효과

·고름의 구조의 세가지 구조간에는 Scheffé의 다중범위 검정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단서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13〉은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로 유사조화와 대비조화 모두에서 난색이 더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유사조화의 경우는 치마색상의 한·난색에 따른 지각차이가 컸으나 대비조화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적었다. 〈그림 14〉는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사조화의 의



〈그림 14〉 친화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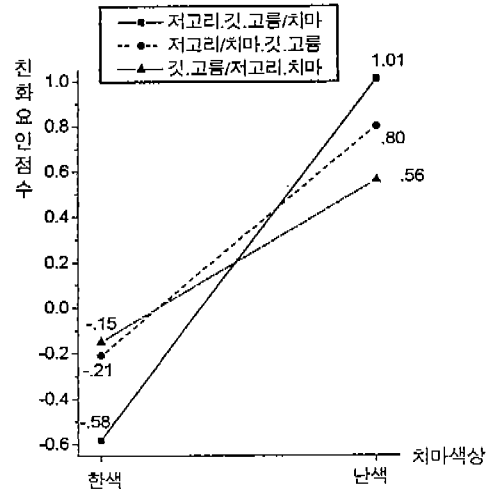
〈그림 15〉 친화요인의 인상에 대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

복이 대비조화의 의복보다는 친화적으로 나타났고 유사조화 내에서의 구조간의 친화요인 점수평가의 차이가 적었다. 유사조화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가 가장 친화적으로 지각되었으나 대비조화에서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를 가장 친화적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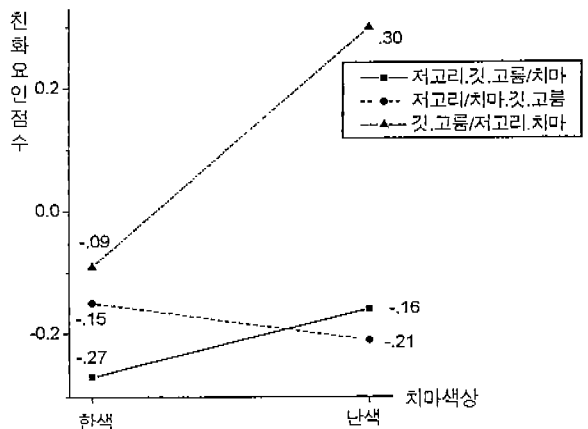
〈그림 15〉는 친화요인에서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를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

름구조보다 더 친화적으로 평가한 반면 치마색상이 난색인 경우는 그와 반대로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를 가장 친화적으로 그다음은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 저고리·깃·고름/치마구조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는 한색인 치마색상에서 가장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각되었으나 난색인 경우에는 그 친화 정도가 상반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 치마색상, 구조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나타



〈그림 16〉 친화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유사조화



〈그림 17〉 친화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 치마색상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효과-대비조화



낸 것이다. <그림 16>과 같이 유사조화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가장 친화요인의 점수가 낮았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에는 모든 구조중 가장 친화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친화요인점수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에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보다 더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17>과 같이 대비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와 반대로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보다 더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보다 난색의 치마색상인 경우 훨씬 더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16>과 <그림 17>에서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서로 상반된 경향으로 평가되었다.

## V. 논 의

### 1. 연구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 1) 자극물

본 연구에서 자극물은 여자한복착용자의 킬라 사진이 사용되었다. 자극물은 자세와 형태가 통제된 동일인물의 여자한복착용자로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색상을 기초로 한 구조의 변화로 단서를 조작시킨 것이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자극물은 많은 연구들(Gibbins와 Coney, 1981; Damhorst, 1984~86; Paek, 1986; Bell, 1991; Behling와 Williams, 1991)에서 사용되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자극물은 실제인물의 사진보다는 인위적이며 현실감이 적어 그에 따른 오차를 감안해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의복 착용자의 모습에서 착용자세, 배경, 머리모양들을 통제하고 의복의 색상조화 등을 조작하여 만들어진 자극물

을 사용하였다. 즉 자세가 올바르며 정면모습인 자극물의 사진을 scanning 받은후 그 사진내에서 색상만을 조작하여 본 실험에 사용한 19장의 사진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색상빈도조사나 색상조각이 '한국표준색표집(한국방송공사/공업진흥청)과 비교하여 조작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색감에서 오는 오차가 발생할수 있었으며 사진으로 현상하는 과정에서도 현상시 현상된 사진의 색상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수차례 원본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추어 현상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용된 색상조화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의 특성상 유사조화에 비해서 대비조화의 자극물수가 많았기에 이에 따른 자극물의 선택에 있어서 유사조화와 대비조화의 수가 동일할수 없었다는 것이 제한점이었다. 또한 색상조각에 있어서도 깃과 고름은 저고리색이나 치마색의 돌출 하나와 반드시 같은 것으로 조작하였는데 현재 착용되는 의복에서는 치마, 저고리, 깃·고름의 세부분의 명도와 채도 및 색상이 다른 한복도 많아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연구에서도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조작은 되었으나 단서로서 비교가 된 것은 크게 색상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같은 색상내에서 명도나 채도에 따른 비교연구도 추후 이루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는 full factorial design이 아닌 한 피험자가 19장의 자극물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방법에 있어서 순서효과가 없도록 고려하였고 제시간격의 시차도 고려하였으나 한 사람이 19장의 자극물에 응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2) 의미미분척도

본 연구의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선정된 형용사쌍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추출된 것을 사용하였다. 의미미분척도의 사용에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처리하는 지각자의 능동성이 간과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형용사쌍의 이용은

지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중요한 틀, 즉 지각자들의 내현성격체계를 간과함으로서 지각자의 지각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남미우, 1992). 이런 문제점들은 인식하면서도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각해야할 자극물이 많았기에 형용사쌍을 이용한 설문형식이 피험자들의 응답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연구에서 사용한 양극 형용사쌍은 단일형용사의 평가척도보다 제시되는 형용사의 의미피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의미미분척도에 의한 자극물평가외에 자극물에 대한 자유응답문항을 포함시켜서 의미미분척도에 응답시 부족했던 인상형성시의 지각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있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

## 2. 연구문제 규명결과

### 1)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

첫째,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평가를 요인분석한 결과,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의 4개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선호·평가요인으로 29.6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요인 2는 개성·주의집중요인으로 25.13%, 요인 3은 젊음요인으로 5.07%, 요인 4는 친화요인으로 3.70%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선호·평가요인에서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상차원중 평가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박혜선, 1982; 강혜원·이주현, 1990). 본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상의 3대 기본차원이라고 인정되어온 평가, 능력, 활동성 차원중 평가차원만 나타났는데 이는 본연구의 의미미분척도에 사용된 형용사쌍들은 선행연구에서 선택되어 사전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표현이 특히, 색상, 색상조화, 구조의 측면을 평가하기에 타당하다고 평가된 것들만으로 구성되었기에 선호·평가요인외에 개성·주의집중

의 요인들이 도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측정도구개발과정시 능력요인에 해당되는 많은 형용사쌍들(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자신감있다.-자신감없다., 유능하다.-무능하다., 성실하다.-성실하지않다.)과 활동성요인(활동적이다.-비활동적이다., 정적이다.-동적이다.)에 해당되는 형용사들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표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척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2)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4개의 인상요인(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에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는 규명되었다. 특히 의복단서중 색상조화와 구조는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치마색상(한색, 난색)은 선호·평가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종래의 선행연구들에서 의복색(유행색/기본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많지 않았고 다만 다른 단서(상황, 유형, 형태)와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나(남미우,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도 착용자의 인상에 의복색의 영향이 드물게 나타났다(고애란, 1990; 이주현, 1990; 김광경, 1991). 그러나 한복은 실제로 형태가 일정하고 색상과 소재에 따라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한복의 의복유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색상의 변화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의복의 다른 단서보다 색상조화에 의한 단서차이가 주는 인상연구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상조화, 색상을 기초로하여 나누어진 구조 및 치마색상에 의한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색상'의 영향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의 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 (1) 의복단서

색상조화: 색상조화는 네가지 모든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의복의 배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른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인

상이 변화된다고 볼수 있다. 유사조화의 의복은 선호·평가요인과 친화요인에서, 대비조화의 의복은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젊음요인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정삼호(1990)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선호간의 비교연구에서 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착용색은 순색을 높게 선호하여 전통적인 보색대비를 선호하였다는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수 있다. 이는 피험자의 연령에서 오는 차이로 성인여성들은 한복의 배색에 있어서 좀더 대비되는 색을 선호하였으나 20대의 젊은 이들은 강렬한 대비보다는 유사조화의 은은한 의복을 좀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청년기의 여성들이 유사배색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단색을 선호하였다는 Judy(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마색상: 치마색상은 선호·평가요인을 제외한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Horn(1981)과 강혜원·고애란(1991,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색의 치마색상은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상에, 난색의 치마색상은 젊음요인과 친화요인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에 있어서는 난색의 치마색상이 한색의 치마색상보다는 좀더 젊고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본연구의 피험자가 20대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피험자의 연령에서 오는 특성이라고 볼수도 있다. 의복단서중 치마색상(한색, 난색)은 선호·평가요인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는 치마가 의복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지만 그 부분의 색상, 즉 부분적인 면보다는 의복의 전체적인 면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구조: 본 연구의 색상을 기초로 하여 나눈 구조는 네가지로 저고리·치마·깃·고름, 저고리·깃·고름/치마, 저고리/치마·깃·고름, 깃·고름, 깃·고

름/저고리·치마의 구조이다. 이중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가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는 개성·주의집중요인에,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는 젊음요인에,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친화요인의 인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선호·평가요인과 젊음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 단서는 동일한 구조인데 이는 지각자들이 20대 젊은이들로 자기때래의 연령으로 지각되는 젊게 보이는 구조를 선호·평가한 것으로 지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복단서간의 상호작용효과: 의복단서내에서도 상호작용효과 나타났다.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이 상호작용하여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친화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색상조화와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선호·평가요인, 젊음요인, 친화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마색상과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개성·주의집중요인, 젊음요인, 친화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단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선호평가요인에서는 유사조화의 한색의 치마색상이 더 선호되었고,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는 대비조화에서의 한, 난색의 치마색상에 따른 지각차이가 없었으나, 유사조화에서 한색의 치마색상을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했다. 친화요인에서는 유사 및 대비조화 모두에서 난색이 더 친화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유사조화의 경우 한·난색에 따른 지각차이가 컸으나, 대비조화에서는 치마색상의 한, 난색에 따른 지각차이가 크지않았다.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선호·평가요인과 젊음요인에서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와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친화요인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각 요인별로 깃·고름/저고리

· 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간의 지각차이가 색상조화에 따라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친화요인에서는 치마색상(한색, 난색)에 따라 네가지 구조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반면 젊음요인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나머지 세구조 사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젊음요인에서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한·난색(치마색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수 있다.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친화요인은 치마색상(한·난색)에 따른 구조의 지각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다.

의복단서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에서는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젊음요인에서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에 따라 상반된 평가경향을 보여 구조 중 특히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에 따라 민감한 평가를 받은 구조라고 볼수 있다. 친화요인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두 구조는 치마색상, 구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색상조화에 따라 지각차이가 크게 나타나 거의 상반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

###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세와 실루엣을 통제된 동일한 한복차림에서 색상조화와 색상을 기초로 한 구조의 변화로 조작시킨 실제의복착용자모습의 자극물로 연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한복에 대한 인상형성과 또한 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한복내의 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한복착용

자의 전반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단서 영향을 더욱 다양하게 규명하여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된 지각자의 연령층이 주로 20대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청년기의 남·녀대학생의 결과만으로 국한시켜 연구결과를 전체 대상자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인상형성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한복의 색상을 조작한 단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한복은 일상복의 특성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복이어서 일상적의복의 일반적인 인상형성으로는 볼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여자한복착용자의 의복단서변화로 색상만을 기초로하여 의복단서를 나누었으나 색상과 함께, 명도, 채도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연구하여 색상, 명도, 채도의 모든 면이 고려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민무늬의 의복에 색상만의 변화를 조작했으나 자극물의 조작시 색상만이 아닌 형태의 변화와, 문양, 자수의 변화가 이루어진 자극물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섯째, 자극물에 대한 인상형성시 의미미분척도에 의해서만이 아닌 지각자들의 자유응답의 질문이 포함되어 지각자들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수용해야 할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에 의한 대인지각연구에서 인상형성이론을 적용하여 여자한복착용자의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은 의복단서를 조작한 19장의 칼라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의미미분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각자들은 19장의 자극물을 모두 보고 그 인상을 평가하였다.

지각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

· 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3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86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한복착용자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평가를 요인분석한 결과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젊음요인, 친화요인의 4개의 인상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의복단서에 따른 인상요인의 변화와 차이는 색상조화에서는 4요인 외에 근접보색조화와 삼각조화에서 독특성요인이 도출되었고, 색상에 의한 인상에서는 난색의 치마색상에서만 보편성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한색의 치마색상은 차이가 없었다. 구조에 의한 인상에서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에서 품위·외모요인, 격식요인이 도출되었고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에서도 격식요인이 도출되어 인상형성시 색상조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구조에 따른 영향이 좀더 다양하고 많았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전반적으로는 의복변인에 의해 요인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둘째,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복단서는 선호·평가요인에 대해, 치마색상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나 의복단서에 따라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다.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서는 부분적인 면보다는 의복의 전체적인 면의 관찰을 통해서 인상이 형성된다.

셋째, 각 의복단서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는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친화요인에서 나타났다. 선호평가요인과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는 유사조화의 한색의 치마색상이 더 선호되었고, 친화요인에서는 유사조화의 경우에 치마색상(한색, 난색)에 따른 지각차이가 컸다. 색상조화와 구조의 상호작용효과는 선호·평가요인, 젊음요인, 친화요인에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색상조화(유사조화, 대비조화)에 따라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간의 지각차이가 컸다. 치마색상과 구조의 상호작용효

과는 개성주의집중요인, 친화요인과 젊음요인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음요인에서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는 다른 구조에 비하여 치마색상에 따라 구조의 지각차이가 컸다.

의복단서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에서는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젊음요인에서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가 특히 색상조화와 치마색상에 따라 민감한 구조이며 친화요인에서는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간에는 치마색상, 구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색상조화에 따라 상반되게 지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자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의복은 비언어적단서로 사용되며 의복단서(색상, 색상조화, 구조)들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의복착용자의 인상에는 세가지 의복단서의 영향이 모두 있으나 그중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는 색상조화가 중심특질(central trait)이 되어 다른 주변특질(구조, 치마색상)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아로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로 지각한다는 형태주의적 접근이 지지되었다.

## 참고문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31~43, 1990
- 강혜원, 고애란,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태도, 선호 및 착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5, pp.125~137, 1991(a)
-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211~227, 1991(b)
-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0
- 김광경,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재숙,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여성노인의 의생활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화중역, Birren, 동국출판사, 색채심리, 1995
  -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본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경희, 의복형태이미지의 시각적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사, 1991
  - 이선경, 남성복 유형과 얼굴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은미, 남성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6
  -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Horn, M.J., & Gurel, L.M., 의복; 제2의 피부, 가치, 1981
  - 정삼호, 성인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선호간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4, pp.55~74, 1990
  - 정양은, 사회심리학, 법문사, 1982
  - 최문영 역, Kelly. G.S., 귀인이론, 중앙적성출판사, 1991
  -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 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Asch. W.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1 pp.258~290, 1946
  - Bell E.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8~12, 1991
  - Butler S. & Roesel K., Research note :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pp.57~59, 1989
  - Damhorst M.L.,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pp.39~48, 1985
  - DeLong,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DeLong M. & Key-Sook guem, Systematic analysis of the aesthetic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dress, ITA special publication, 7, pp.224~234, 1994
  - Freedman, J.L., Sears, D.O., and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4th ed), Prentice-Hall, Inc. 1981
  - Gibbins K. & Coney J.R.,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pp.720~722, 1981
  - Gibbins K. & Schneider A., Meaning of garments :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o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pp.287~291, 1980
  - Judy W., Joyce A. & Margaret R,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E. R. J 9(1), pp.57~63, 1980
  - Harp, S.S., Stretch, S.M., and Harp, D.A., The Influence of Apparel in Responses to Television News Anchorwomen, edited by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 : Heath, Lexington Books, pp.279~291, 1985
  - Holbrook M.B., On the importance of using real products in research on merchandising strategy, Journal of Retailing, 59(1), pp.4~

- 20, 1983
- Holbrook M.B., Aims,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Represent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sthetic Responses to Design Fea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December, pp.337~347, 1986
  -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O'neal G. & Lapitsky M., Effects of clothing as nonverbal communication on credibility of the message sour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pp.28~34, 1991
  - Paek S.L., Effects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10~16, 1986
  - Ray G.H., Perception of physically impaired job applicants: Effect for dress, credentials, and rater's sex,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pp.16~19, 1985~86
  - Winakor G. & Navarro R.,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pp.40~48, 1987
  - Workman J.E.,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pp.20~23, 1984~85

## ABSTRACT

Effect of Clothing cues and Perceiver variables on Impression Formation of Female dressed in Korean Dress(Part I)

-- Focus on Clothing Cues --

Nineteen stimulus photographs varied in hue and color scheme of one clothing style of Korean dress worn by a female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lor, color scheme and structure on impression formation for Korean dress. Subjects were 77 male and 86 femal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 stimuli consisted of two sets(cool and warm) of four similar color schemes, two sets (cool and warm in Chima color) of five contrasting color schemes, and one extra stimulus, triad 3 hue base. Structures were defined by color schemes of Kit · Korum toward the color schemes of Jokori and Chima. Stimulus photograph selected from Korean dress fashion magazines was managed and varied in hues and color schemes to Kit, Korum, Jokori and Chima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Color through scanning and Adobe photoshop 3.0 program, and then pictured through slide printer(HR-6000). Each subject assessed 19 stimulus color photographs with incorporated 7 point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Results indicate impression formations are affected by clothing cues.

1) Four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dimensional structure of impressions of female features on Korean dress. These four factors were titled as (1) preference · evaluation, (2) individuality · attention, (3) youth and (4) friendship. The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was the largest, including eleven adjectives and accounting for 29.62% of the variances.

2) Almost every clothing cue(color, color scheme, structure) had some effects on impressions formed. But the color of Chima did

not form the effects on impression of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The effect of related color scheme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s of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whereas the effect of contrasting color scheme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s of individuality · attention factor and youth factor. The effect of cool color of Chima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 of individuality · attention factor, whereas the effect of warm color of Chima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s of youth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The effect of Jokori / Chima · Kit · Korum structure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s of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and youth factor, whereas the effect of Kit · Korum / Jokori · Chima structure was the most influential clothing cue on impressions of individuality · attention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3)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appeared among clothing cue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lor schemes(similar and contrasting) and colors of Chima(cool and warm )were appeared on impressions of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individuality · attention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lor schemes (similar and contrasting) and structures (Jokori · Chima · Kit · Korum ; Jokori · Kit · Korum / Chima ; Jokori / Chima · Kit · Korum ; Kit · Korum / Jokori · Chima) were appeared on impressions of preference · evaluation factor, youth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lors(cool and warm) and structures were appeared on impressions of individuality · attention factor, youth factor and friendship factor.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mong clothing cues(colors, color schemes and structures)were appeared on all impression factors. The friendship factor was the most frequently affected impression factor by interaction effects among clothing cues.

In summary, the clothing was used as nonverbal cues in the effect on impression formation of female dressed in Korean dress. It concluded that color schemes worked as central traits, and colors of Chima and structures worked as peripheral traits in the formation of impression of the female clothed in Korean dress. Hence organizing our impressions with respect to the parts of the Korean dress in relation to the whole, holistic perceptual process, Gestalt approach was used and supported.